

아시아 다음세대 연구자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제 출 문

서울시 청년허브 귀하

본 보고서를 「아시아 다음세대 연구자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2.

연구기관명 재단법인 랩2050
책임연구원 이원재 재단법인 랩2050 대표
부책임연구원 이은경 재단법인 랩2050 객원연구원
연구원 김현아 재단법인 랩2050 기획실장
연구보조원 이정은

1장 서론

1. 서론

1.1 추진배경

2000년대 이후 부상한 청년세대 담론과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문제 등 동시대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정부의 청년임대주택 확대 정책, 서울시와 성남시 청년수당 도입 등이 대표적인 예로서, 국가의 주요 정책의제로 자리매김한 청년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정책 범주를 넘어서 다음세대가 직면할 미래의 문제들을 조망하고, 그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예컨대 기술진보와 일(work)의 변화, 저출생·고령화, 기후와 환경, 난민, 젠더 등의 다음세대 의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세대 의제의 특징은 하나의 국가, 한 세대,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서구와 다른 역사성과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인해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할 필요성이 높다. 가령, 미세먼지 문제는 동아시아 국가 및 도시 차원에서 공동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이며, 고령화와 돌봄의 문제는 아시아 내 이주·이민 정책의 전환적 사고를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과 한반도 평화 흐름 또한 아시아의 지속가능성과 교차시켜 다루어야 할 의제이다.

서울시 청년허브는 2014년부터 청년 연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한 성과를 냈다. 이에 더 나아가 그 목표를 아시아 다음세대의 삶의 질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018년 현재 한국 사회 청년에게 주어진 사회적 과제와 성장을 아시아 다음세대 의제로 확장하여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제 연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아시아 다음세대 연구자들의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핵심 질문에서 출발한다.

1.2 기획의도

“한국사회의 사회양극화 심화와 청년실업난 구조에서 청년들이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역량(capability)이 이전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상황에서, 다음세대가 자신의 생산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최근 우리사회가 ‘저성장’ 사회, ‘위험 사회’를 우려하면서도 사회구조적 문제를 청년들이 개별적으로 감당하도록 내버려두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문제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구조적인 원인에 갇혀버릴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다른 삶의 방식과 경로를 스스로 찾고,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청년들이 가진 여러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견하고 경로 다각화에 대한 길을 제안하고, 청년세대의 현재 보유 자원과 우리사회의 환경을 분석하여 다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더라도 실현 가능한 해법이라고 하겠다.

청년을 지원하고 키우는 데는 여러 방식과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는 공적 자원의 투입을 통해 개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격차를 해소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게 하는 즉, 청년세대가 갖는 잠재력 총체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모델을 공공에서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또 그러한 투자를 통해 아시아 차원에서 경로를 열어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시의 에너지이자 미래사회를 이끌 주체로서 청년의 핵심적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와 부합하는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시아 다음세대 연구자 교류·협력 플랫폼은 서울을 넘어서는 교류와 협력, 협업과 확장의 구조로서 청년의 실험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공적자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플랫폼은 현 사회시스템과 생활세계의 문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사람들, 스스로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고 만들어 나가려는 사람들, 나아가 연구와 활동을 넘나들며 이론과 실천의 연결을 시도하고 통합적인 전략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플랫폼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다음세대가 살아갈 사회 또는 삶의 방식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들의 아시아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연구인가. 청년들의 활동생태계에서 비어있는 부분이 실행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활동가들과의 교류이기 때문이다.

“많은 활동가들이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연구자는 활동가를 지켜보지만 활동가가 만족할 만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고, 자신의 활동이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더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안연정, 청년허브 센터장 인터뷰 내용 중).

즉, 청년들이 이론과 현장을 연결시켜 자신의 삶 또는 현장에서 펼쳐온 활동의 의미와 효과를 해석하고 표명하며, 자기혁신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국가 중심에 한정된 경험과 상상력을 넘어설 아시아 네트워크라는 확장된 기반을 갖게 하는 것이 이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더 나아가, 이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아시아적 상생 모델’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유일한 아시아 분단국가인 한국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의 전망을 담아내는 프로젝트가 이 플랫폼에서 시도될 수 있다. 또,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서울이 특히 선도적으로 발전시켜온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과 사회적 경제 모델’을 아시아 청년들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 더욱 확장하고, 아시아의 상생을 이루는 단계로 한발 더 나아가도록 하는 담대한 기획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2-3장 연구목적과 연구 내용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선, 국내외 레지던시, 펠로우십 및 지역혁신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잠재적 수요자 및 기획 단위의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시아 다음세대 연구자 교류·협력 플랫폼 필요성 및 수요지점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아시아 다음세대 연구자 교류·협력 플랫폼의 기획안과 컨셉 및 세부요소를 도출할 것이다.

3. 연구 내용

3.1 국내외 레지던시, 펠로우십 및 지역혁신 프로그램 조사

다음세대 연구자 교류 협력 플랫폼의 핵심 내용은 활동과 연구의 전통적인 경계와 한국사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교류 협력의 장이다. 그러한 교류 협력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의 대표적인 레지던시와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역기반의 혁신 프로젝트 지원 및 그랜트 프로그램의 사례를 포함하여 각 형식의 전반적인 운영 내용과 특징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1) 글로벌 레지던시 및 펠로우십 프로그램

■ 록펠러 재단 The Bellagio Center Residency Program

‘인류 복지 증진’이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는 미국 록펠러재단 (Rockefeller Foundation)은 전 세계 빈민 및 취약인구 구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보건, 일자리, 도심 회복력, 식량, 친환경 에너지, 자선, 혁신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벨라지오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중견 학자, 예술가, 시민사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시 펠로우십이다.

(1) 선정기준 재단의 비전과 제안서의 부합 여부. 관련 분야에서의 제안된 결과의 실현 가능성, 사회공헌 가능성의 폭, 다른 참가자들과 교류 및 소통 가능성, 다양성 유지를 위해 같은 연구 기관 및 국가 참가자 제한

(2) 특전 이탈리아 벨라지오에 위치한 고즈넉한 빌라에 개인 연구 공간 제공. 학자, 예술가, 활동가 세 분야의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및 교류하면서 서로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

(3) 운영 및 선발

- 보통 주제로 엮이지는 않지만 특별 테마 레지던시를 운영하기도 함.
예) 2016년 여름 '인간행동' 주제
- 모집시기
 - Cycle 1: 10월 1일 ~12월 1일, 다음 해 4월 결정
 - Cycle 2: 3월 1일 ~5월 1일, 같은 해 9월 결정
- 기간 한 달
- 지원자료 개인 신상정보, 레지던시 지원 질문지, 이력서, 프로젝트 기획서, Published Reviews (선택사항), 이전 레지던트 추천서 (2차 지원 시)
- The Academic Writing Residency (학술저서)
 - 대상: 수십 년의 연구 성과가 있는 대학 및 싱크탱크 학술가, 연구자, 교수, 과학자 또는 앞으로의 행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진 연구자
- The Arts & Literary Arts Residency (예술과 문학)
 - 대상: 작곡가, 픽션/논픽션 작가, 극작가, 시인, 영상 제작자, 무용가, 음악가, 시각 예술가
 - 포괄성 확대와 지역 및 규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델리의 Khoj International Artists

Association, 멕시코 시티의 Fundacion Jumex, 케이프타운의 Africa Centre, 시카고의 United States Artists와 협력

• **The Practitioner Residency (활동가)**

- 대상: 10년 이상 경력의 정책입안자, 비영리 기관 관계자, 기자 등
- 목적: 이미 성공적인 업적을 쌓은 활동가들이 그 동안의 활동을 정리 및 통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한 레지던시.

■ **재팬 파운데이션 레지던시 프로그램 Asian Leadership Fellow Program**

지역 및 국제적 이슈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지역의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펠로우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 사회적 이슈의 해법에 아이디어를 주고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대상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 분야 리더들 (연령: 35~59세)

(2) 기간 두달

(3) 운영 및 선발

- 1996~2018년까지 운영. 2018년으로 사업 종료됨.
- 2018년 테마
“Imagining Plural Asias: How Can We Enrich Interrelationships Across Borders?”
- 인원 매해 7~8명
- 지원방식 오픈콜
- 운영방식 주최 측에서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단력적으로 펠로우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함. 자유자재로 펠로우들끼리 생활하고 만나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재팬파운데이션의 펠로우십 및 그랜트 프로그램**

(1) 그랜트 프로그램 Promotion of Cultural Collaboration

- 대상 일본 및 ASEAN 국가의 공동연구협력 프로젝트
- 지원범위 출장비, 장소 및 장비 사용비, 통역비, 선재비, 화물비
- 지원 프로젝트 2개 이상 국가의 협력 프로젝트, 최소 1개의 일본 출신 기관의 참여, 최소 30% 이상의 펀딩. 문화, 예술, 스포츠 또는 지적영역의 인적자원 발전, 네트워크 구축, 교류 기반 강화, 공동제작, 공동 연구 이니셔티브 등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 지원방식 오픈콜

(2) 펠로우 프로그램 The Asia Center Fellowship Program

- 대상 ASEAN 국가 또는 일본 국적의 참가자
- 지원가능 분야 예술, 문화, 학술, 지적 교류, 스포츠
- 지원가능 국가 아세안 및 일본. 다국가 프로젝트 가능, 일본 외 국가의 참가자는 일본에서의 활동 포함 필수, 자국가에서의 프로젝트 지원 불가.
- 지원시기 상반기/하반기
- 지원 기간 분류 단기 21~59일/ 장기 60일~6개월
- 지원범위 국제항공료(이코노미 클래스), 장학금
- 펠로우 수 17명의 지원자 중 9명 (2018년 상반기 기준)
- 선정기준 석사 이상의 학업 수준, 출판물, 과거 성과 및 활동, 제안한 프로젝트의 계획과 목표 등의 명확성, 펠로우십 기간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 계획, 제안 프로젝트와 과거 성과의 연계성, 제안한 프로젝트의 예상 가능한 사회 임팩트

(3) 그랜트 프로그램 Enhancing People-to-People Exchange

- 대상 일본에 기반을 둔 기관
- 지원시기 상반기/하반기
- 지원가능 프로젝트 아세안 국가 또는 일본에서 수행될 교류 프로젝트로 지역 및 시민 레벨. 2 개 이상의 국가 참여. 과반수의 참가자가 아세안 국가와 일본 출신
- 지원범위 출장비, 장소 및 장비 사용비
- 작년 상반기 지원 프로젝트 수 41개 지원 프로젝트 중 15개

■ 도요타파운데이션 그랜트 프로그램

(1) International Grant Program

- 2018 프로그램 '이웃으로부터의 배움을 통해 공감 길러내기: 아시아 공통의 이슈에 대한 활동가들의 교류'
- 목표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기반을 둔 사람들 간의 이해와 지식 교류를 넓혀 공동의 이슈에 대한 해법 타진. 타깃 국가들의 상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새로운 관점을 얻고 미래 세대의 가능성 확장.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이 모인 다국적 팀은 기존의 수직적 관계(예: 후원자-피후원자 또는 지도자-학습자)를 탈피하여 협력적이고 창의적인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음. 국적, 나이 및 기관을 넘어선 파트너십으로 상호적인 배움의 장을 만들어내며 사회의 의 미심장한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할 것.
- 프로젝트 필수요소 다국적, 영역 간 협업, 상호 배움, 통찰

- 프로젝트 기간 1년 또는 2년
- 구성원 다국적 팀. 활동영역 경험과 지식이 있는 멤버 필수. 활동가, 연구가, 크리에이터, 정책 입안자, 기자 등
- 그랜트 금액 1년 프로젝트 약 USD 44,500, 2년 약 USD 89,000
- 지원방식 오픈콜
- 주제영역 ① 공동체 속 다세대 및 다문화 포용
② 새로운 문화 창조: 아시아의 공동 플랫폼을 위하여
③ 오픈 필드
- 기대 결과물 ① 대상국의 상황 조사 및 분석으로 이슈 발견 및 리뷰 작성
② 이슈에 해법이 될 수 있는 활동 착수
③ 유형의 결과물 제작

(2) Research Grant Program

- 메인 의제 사회의 새로운 가치 탐구
- 지원방식 오픈콜
- 그랜트 금액 프로젝트 당 8백만 엔화, 총 6천만 엔화
- 그랜트 기간 2년
- 자격요건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 45세 이하의 연령, 연구분야 및 방법, 국적 및 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선정방법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도요타 파운데이션 이사회 회의에서 발표

■ 미국 오픈소사이어티 펠로우십 Open Society Fellowship

- 2008년에 설립되어 재단이 제시하는 사회문제의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해법을 제안하는 개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컨셉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의 오픈십, 거버넌스, 기업가정신, 금융혁신이 필요함.
- 지원 방법 오픈콜, 제안서 제출
- 지원 내용 펠로우는 1년의 기간 동안 8만 달러 또는 10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으며 재단의 시설에서 레지던시가 제공되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름.
- 결과물 결과물의 유형은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저서, 저널리즘 기사, 학술 논문, 예술 프로젝트, 포럼 등으로 다양함.

■ 테드 펠로우 프로그램 TED Fellows Program

- 지원대상 활동가, 메이커스, 발명가, 영화인, 사진작가, 음악가, 예술가, 과학자, 창업가, NGO, 인권활동가
- 지원방식 오픈콜
- 선정기준 활동성과, 카리스마, 국제적 난제 해법의 혁신성
- 지원 인원 20명
- 특징 전문 코칭과 멘토링, PR 전문가와 함께 세상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알리는 전략을 짜기, TED 컨퍼런스, 커뮤니티와 교류, 자신만의 TED Talk을 통해 세상에 아이디어를 알릴 기회
- 임팩트 자신감을 향상하고 미션에 대한 확신을 키움. TED 커뮤니티의 네트워킹을 통해 펀딩과 지원금을 받고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함.

2) 해외 지역 혁신프로젝트 및 펠로우 프로그램

■ 미국 샌디에고 글로벌액션리서치센터 (The Global Action Research Center)

(1) 개요

건강한 사람, 건강한 장소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발전을 지원하는 비영리조직으로 학계와 지역 공동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에 중점을 둔다.

(2) 활동 방식

-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AR) 이슈를 조명하고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론인 참여액션리서치를 시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 직원들이 컨설팅한다. 또한 직접 참여액션리서치를 실행한다.
- Participatory Narrative Development 조직 리더와 센터 직원들과 함께 캠페인과 성공사례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 발전시켜 향후캠페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다.
- Participatory Community Assessment ‘수요조사’는 따로 실시하지 않고 구성원들과 공동체의 수요, 욕구 및 기여하고 싶은 바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고안하여 이를 기반으로 향후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함.
- Program Evaluation/Appreciative Inquiry 기존 평가방식과 달리조사·관찰 방법을 프로세스 안에 통합하여 강압을 최소화하고 과정에 대한 보고,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피드백이 그룹 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 평가를 통해 얻은 결과를 캠페인에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Popular Education 공동체참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라고 보고 구성원 간의 대화를 중요시함. 이슈와 주체 간의 연결고리를 대화를 통해 이끌어냄. 신뢰기반의 네트워크를 형성

하도록 지원하고 가족, 친구, 이웃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가도록 한다.

- **Developing Learning Organizations** 구성원들의 학습을 고취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직에 대한 리더십 개발, 전략적 기획, 프로그램 기획 및 혁신관리를 통해 각 조직의 능력을 향상하고자 함.
- **Demonstration Projects**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보여주는 것이라는 모토 아래 800 평방미터 되는 부지에 마을정원 및 최첨단 농업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학습연구센터 설립.
- **Link Communities to University-Based Resources** 대학과 커뮤니티라는 두 섹터의 각각 방대한 지식의 보고를 의미있고 상호수혜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관계맺음의 촉진자 역할 수행한다.

(3) 주요 분야

- **Green Infrastructure** 안전한 먹거리, 물, 공기, 친환경 에너지
- **Refugees** 난민단체와 6년간 협업
- **Youth** 기성세대와 청년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체 의사결정에 청년들의 에너지와 창의성을 불어넣음
- **Neighborhoods** 샌디에고 내 지역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초기단계부터 참여하게 함.

■ 홍콩 Jockey Club Make A Difference Social Lab

2016년도에 시작한 홍콩 최초의 지역 공동체 주도의 공공서비스 혁신 랩으로서, 홍콩 Jockey Club Charities Trust의 지원을 받아 정부기관과 시민들이 협력하여 공동체 참여, 디자인 씽킹, 상호 창조적인 실험을 통해 더 나은 공공의 삶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정책 디자인 실현을 목표로 한다.

- **최근 프로젝트** Healthy Street Lab @ Sham Shui Po
- **프로젝트 기간** 2018년 3월 - 7월 (3~4월 필드조사 → 4~7월 프로토타이핑 → 결과)
- **참여 멤버** 20명 (교통과 엔지니어 4명, 서비스 효율 관련 공무원 2명, 도시 계획자, 공무원, 사회복지사 3명, 공동체 주최자, 학부 및 대학원생 3명, 디자이너, 연구자, 엔지니어, 건축가, 도시 기획자)
- **실험 내용** 스마트폰 유저들의 안전을 위한 지표면 신호등, 거리의 놀이공간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차량 통행 우회, 환경미화원을 위한 보도블록 위 수레 전용 레인, 도보자 중심의 거리 디자인
- **이전 프로젝트** 공원 프로젝트, 도서관 프로젝트

■ 홍콩 David Clarke Social Innovation Fellowship

오픈콜로 진행되며, 홍콩, 호주, 영국, 미국 지역 비영리 단체 CEO에게 수여한다. 사회혁신 사례 연구 출장비를 위해 한화로 약 2천만 원 가량을 지원한다.

■ M+ / Design Trust Research Fellowship

홍콩과 Pearl River Delta 지역 중심 연구 프로젝트와 M+ 미술관의 아시아내 입지와 연계하여 아시아 지역 연구 분야로 나누어 지원된다. 결과물은 논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 형식을 제출할 수 있다. 미술관 내 강연과 연결된다.

■ 싱가포르 Social Innovation Park

사회혁신 관련 비영리 단체의 시니어를 위한 SIP Distinguished Fellows 프로그램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니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다.

■ 그 밖의 다국가 대상 프로그램

- AirAsia Foundation Grant 아세안 국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랜트 프로그램
- DBS Foundation Grant 싱가포르 기반 은행에서 시행하는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 대상 프로그램
- Youth Co:Lab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과 씨티재단 Citi Foundation이 공동 설립한 Asia Pacific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년 활동 지원 프로그램
- 프랑스 기반 재단 the camp foundation, Hive 선정된 20명의 젊은 다국가 디자이너, 엔지니어, 크리에이터가 모여 함께 해법을 찾을 사회 문제를 결정한다. 학위 보다는 관련 분야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6개월씩 2번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하우징(레지던시)과 인하우스 레스토랑, 바, 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 월 600 유로를 지급하며, 운영진은 사무국 스텝, 멘토, 이사회, 텔런트 스카웃 멤버들로 구성된다.

3) 국내 레지던시 및 사회혁신 펠로우 프로그램

■ 아쇼카 펠로우

1982년 인도에서 첫 아쇼카 펠로우를 선발한 이래 전 세계 82개 국가에서 최고의 사회혁신기업가(Leading Social Entrepreneur)를 발굴해온 프로그램이다. 2013년 아쇼카 한국이 출범하면서, 매년 2~3명의 한국 아쇼카 펠로우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 11명 한국 아쇼카 펠로우를 두고 있다.

- 대상 사회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을 간파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혁신기업가. 이미 (시범적) 실행 과정을 거쳐 그 아이디어의 실효성을 증명하고, 더 큰 임팩트를 위해 도약 단계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함.
- 선정기준
 - ① 새로운 아이디어
 - ② 아이디어의 사회적 임팩트: 복제 가능성, 타 국가 확장 가능성
 - ③ 사회혁신기업가로서 자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계획 보유 여부, 문제해결까지 멈추지 않을 사람
 - ④ 창의성: 삶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만들어낸 경험이 꾸준히 나타나는지
 - ⑤ 윤리적 소양
- 지원방법 오픈콜, 추천
- 선정절차 추천/지원 → 아쇼카 한국팀 인터뷰 → 아쇼카 글로벌 담당자 인터뷰 → 한국 선정 위원회 심사 → 아쇼카 글로벌 이사회 승인
- 지원서 주요 질문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있는가?
현 시점에서의 임팩트 수준 (실험단계/여러 개 지역으로 확산/시·도 권역으로 확산/한국 전 사회로 확산/국제적 확산)?
참고링크(단체 홈페이지, 기사, 인터뷰, 강연 영상 등)?
현재 활동을 시작하게 된 개인적인 동기(삶의 경험)?
- 혜택
 - ① 새로운 정체성 획득 “뛰어난 사회혁신기업가”
 - ② 비전의 확장
 - ③ 동료들 간의 커뮤니티
 - ④ 아쇼카의 명성과 다양한 대외 활동 및 파트너십을 통한 직·간접적 홍보 효과
 - ⑤ 네트워크 효과: 각 분야의 리더, 투자자, 혁신기업가, 프로보노 파트너 등과의 교류
 - ⑥ 생활비 지원: 평균 3년 간 소정의 생활비 지원. 정확한 지원 금액은 펠로우 개인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의해 결정
 - ⑦ 협력을 통한 새로운 혁신

■ 아름다운가게 뷰티풀펠로우

사회혁신리더를 발굴하고 그들의 삶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며, 사회혁신리더가 만드는 변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미션으로 설립된 펠로우 프로그램이다. 2011년부터 매년 최대 5명 선발해 활동비, 국내외 연수,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2018년 현재 8기 선발을 마쳤다.

- **인재상** 사회혁신 기업가, 변혁적 리더, 풀뿌리 운동가
- **지원방법** 오픈콜 매년 5~6월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 모집공고/ Step1. 서류심사 → 2. 대면심사 → 3. 심층심사 → 4. 임원심사
- **지원내용** ① 뷰티풀펠로우 지위부여: 아름다운가게 브랜드 활용, 아름다운가게의 인프라 지원
 ② 활동비 지원: 3년 동안 매월 활동비 150만원 지원
 ③ 멘토링 및 네트워크: 경영이슈 분석 및 분기별 목표 점검, 아름다운가게의 네트워크 연계 등
 ④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성장을 위한 연수, 조직역량 강화 등 지원

■ 토지문화재단

(1) 문인 창작실(레지던시) 지원 프로그램

- **운영기간** 2018년 3월 2일 - 11월 30일
- **지원방식** 오픈콜
- **선정방식** 신청서와 추가자료에 대해 7명의 추천위원이 심사하여 추천된 수의 총계가 많은 문인들을 우선해 순차적으로 창작실 지원
- **입주기간** 보통 2달
- **조건** 한 달 기준, 실제 20일 이상 거주하여 창작활동을 해야 함. 월1회 입주 작가들이 함께 모여 작품세계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친교를 나누는 정기 모임을 갖는다.
- **특전** 원룸 형태의 창작실. 월요일~토요일 중식까지 식사 제공.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도서관 명예도서 회원증 사용.

(2) 예술인 창작실 지원

- 활동 분야만 다르고 문인 창작실과 운영방식 동일함.

(3) 스페인 레지던스 참가 작가

- **개요** 스페인 문화활동 국립협회기관 간의 작가교환 해외 레지던스협약을 통해 한국작가를

스페인에 파견하는 프로그램. 한국 작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교류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자격** 문학 및 예술 분야에서 최근 5년 동안 창작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작가
- **지원인원** 1인
- **지원기간** 2018년 9월 ~ 11월 중 최소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지원내용** 왕복 이코노미 항공권, 여행자보험, 전일 식사제공, 숙소포함 부대시설, 숙박지에 서 모든 활동, 도서관과 전시회 무료

■ 경기창작센터

(1) 창작 레지던시

- **모집분야** 국내 예술가 및 연구자 (장르 구분 없음)
- **입주기간** 1년
- **모집인원** 총 15팀(명) 내외
- **신청자격** 예술가 (국내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 연구자/독립큐레이터/비평 등 (예술 분야 전문 비평가로 활동경력이 있는 자, 전시 또는 아트프로젝트 기획경력이 있는 자)
- **지원사항** 1인(팀) 당 스튜디오 1실 제공, 공동창작시설, 경기도 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전시지원(4명 이내), 기획전/아트프로젝트/해외 레지던시 작가 교류공모 기회 제공/도록 등 출판물 발간, 국내외 홍보지원, 상해보험
- **의무사항** 매월 15일 이상 스튜디오 등 공간 사용, 정규 레지던시 프로그램참여(프레젠테이션, 입주 보고 전시, 결과 보고 전시, 오픈스튜디오, 어드바이징 프로그램), 경기창작센터 입주 계약 및 운영규정 준수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1부, 작품 및 활동소개 자료, CV
-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프레젠테이션 및 면접심사)

(2) 교육 레지던시

- **모집분야** 국내 예술가 및 예술 강사 (장르 구분 없음)
- **입주기간** 1년
- **모집인원** 총 5명(팀) 내외
- **신청자격** 경기창작센터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국내거주 예술가 및 예술 강사
- **지원사항** 1인(팀) 당 스튜디오 1실 제공, 교육활동 시 강사료 지원, 공동창작시설 사용 가능, 상해보험 가입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1부: 교육 프로그램 제안서, 포트폴리오, CV
-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프레젠테이션 및 면접심사)

4) 각 프로그램의 특징 및 레지던시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장점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주요 효과는 비슷한 주제 또는 활동 방식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지원자들의 연구와 활동을 추진하고 확장하기 위한 시간과 자원을 숙식 및 인프라 제공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장점이 있다. 또한 해당 레지던시가 있는 지역을 일종의 거점 혹은 필드로 삼아 연구활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부가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자, 예술가, 시민활동가 세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록펠러 벨라지오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 2016년 ‘인간행동’을 특별 주제로 열렸던 프로그램의 경우 참가자들의 상호 교류의 효과가 극대화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가들은 행동과학에서 얻은 통찰력으로 현장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예술가들은 학술적 방법론을 적용해 작품의 영향력을 가시화하도록 했으며, 학계는 예술로부터 행동의 인식론적 요소 외에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감정적인 부분을 이해하고자 시도했다는 것이다.

재팬 파운데이션의 아시아 리더십 펠로우 프로그램의 2018년의 '다원적 아시아를 상상하며: 국경을 넘어선 상호관계 향상'과 같은 폭넓은 주제 선정도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오픈 소사이어티 펠로우십 프로그램 또한 재단의 시설에서 레지던시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용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대상과 영역이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오픈소사이어티 재단의 기본 명제인 경제 불균형에 대한 혁신적 해법을 기준으로 하되 활동가, 연구자, 기자 및 예술가 등 활동영역, 국적 및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레지던시 제공 없이 펠로우십으로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갖는 주된 효과는 펠로우십 수여 단체나 기관의 브랜드를 통한 사회적, 물질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펠로우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축적된 펠로우 네트워크를 통해 기관과 펠로우, 펠로우 기수별, 펠로우 상호간 등의 다층적인 협력 지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레지던시나 펠로우십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지역 기반의 혁신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액션 리서치' 방법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 하다. 실질적인 해법 중심으로 현장으로부터 도출한 가설과 해법을 실험하는 이러한 접근은 지역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홍콩의 소셜랩의 경우 지역 공동체 주체들과 공무원, 연구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이 액션 리서치 방식으로 지역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 샌디에고의 글로벌액션리서치 센터의 경우, 건강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학계와 지역 공동체 사이의 간극을 뛰어넘어 협업할 수 있도록 참여액션리서치(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를 비롯한 여러 사회혁신들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펠로우십 프로그램들은 이미 사회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한 사회혁신기업가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연구활동 교류, 협력 보다는 소셜 앙터프러너 영역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시아 국가 대상 펠로우십도 대부분 사회적 기업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본 연구가 제안하고자 하는 액티비스트리서처 Activist Researcher라는 영역을 충족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다. 미국 등의 해외 국가에서 연구가 및 활동가를 위한 국제 레지던시와 펠로우십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청년 또는 신진 연구자, 다음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세대 연구자 교류 협력이라는 플랫폼의 첫번째 핵심적 내용으로 레지던시 펠로우십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주제를 발전시키고 활동의 깊이와 의미를 확장할 수 있도록 자원과 교류, 그리고 공간이 모이는 장으로서의 플랫폼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이기 때문이다. 청년세대,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시 펠로우 프로그램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널리 시도되지 않았으며, 성과물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이라는 전형적인 공모 사업이나 사업수행에만 집중되는 현행 국내 지원 프로그램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3.2 액티비스트리서처 Activist Researcher (연구활동가)

본 연구가 제안하는 다음세대 연구자 교류 협력 플랫폼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활동과 연구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는 방법론의 체계화다. 전통적인 애드보커시 액티비즘에 대해 학술적인 연구 대상으로서 접근하거나, 참여관찰이나 필드워크의 현장에서 연구자와 활동가의 협업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경계를 넘나들거나 자극과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통합적 관점에서 체계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대학이나 연구소와 같은 제도화된 연구조직에 속하지 않고도 본인의 관심주제를 갖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 또는 활동가들이 독립연구자, 연구활동가 등으로 자신의 활동방식을 호명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 독립연구자 무크지 <궁리>, 1인 활동가 연구자 모임, 독립활동가의 시대 등), 명확한 정의나 구분점에 대한 개념화, 연구활동 방식의 체계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 액티비스트리서처: 용어와 정의

‘액티비스트리서처’라는 용어는 서구의 학계에서 제도권 밖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현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유의미한 연구를 하려는 방식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성과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1년 Hale이 “What is Activist Research?”라는 글에서 제3의 연구방법으로 액티비스트리서처를 제시했다. Hale에 따르면 액티비스트리서처는 불평등이나 억압, 폭력의 문제의 당사자 조직과 함께 연구를 시작하고 전 과정에 걸쳐 직접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이다

(Hale, 2001). 액티비스트 리서치는 불평등, 억압, 폭력 등의 이슈와 원인을 찾고, 당사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outure, 2017). 방법론으로서 액티비스트리서치는 이론에 중심을 두되, 결론이 실제 사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Hale, 2001). 또한 기존의 연구방법론에서 실증을 향한 엄밀함을 갖고, 문체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을 발전시켜, 결과를 좀 더 명확하고 유용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Hale, 2001). 이후, Speed (2006, Couture, 2017에서 재인용)는 액티비스트리서치는 명백한 의지를 가지고 연구 대상이나 그 조직과의 연대를 통해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Bourdieu는 ‘필드’에 대한 개념을 통해 활동과 연구 두 영역 간의 명확한 구분이 있으며 이들은 때로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Bourdieu & Waccquant, 1992, Couture, 2017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활동가는 연구에 인터뷰 또는 회의로 참가했을 때 들인 시간과 자원이 전통적인 방식의 ‘소득 또는 펀딩’과 연결이 되지 않고, 학자들에게는 ‘순수’ 활동이 많아질수록 저술활동의 시간이 줄어들면서 학계의 기준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영역의 간극을 좁히고, 연구와 활동이 겹쳐지는 데서 오는 윤리적 문제¹⁾ 등을 극복한다면, 상호간의 호혜적인 측면이 많으므로 액티비스트리서처들이 위의 사항들을 공론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Couture, 2017).

2) 액션기반연구(Action Based Research, Action Research)와 비교

미국 샌디에고의 지역 혁신프로젝트, 홍콩의 소셜랩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액션기반연구는 주로 공동체의 실질적인 문제해결 연구방식이다. 액션리서치는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것을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운 후, 그 가설을 현장에서 실험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갖는다 (Corey, 1954).

액션리서처라는 용어는 1944년 Kurt Lewin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Lewin은 1946년 액션리서치와 소수자 문제에 대한 논문에서 다양한 행위와 실천의 조건, 결과 등을 비교연구하면서,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연구방법으로 액션리서치를 제안했다. 이후 미국의 MIT, Columbia 대학 등에서 참여액션리서치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다. 액션리서치 또는 액션기반 연구 방법론의 주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²⁾

- 실행 가능한 지식을 생산한다. 즉, 큰 샘플이나 통제된 실험보다는 개별적 사례에 집중한다.
- 모든 지식은 특정한 맥락에 놓이며,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로컬 지식을 우선시한다.

1) 연구가 자신의 활동과 동료 활동가들이 자신의 연구목적이 되었을 때의 상황, 또는 자신이 활동하는 단체에서 리더 격의 역할을 할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주장도 옹호해야하는 상황에서 오는 윤리적인 문제 등이 그 예다.

2) <https://activistresearchmethods.wordpress.com/about/>

3) 평가기준의 한 예로 Daniel Stufflebeam의 Social Impact's Program Evaluation SummaryMetaEvaluation Checklist가 있다.

- 연구 성과는 커뮤니티나 문제 제기자가 무엇을 이해하는 것으로 측정한다. 동료학자들의 연구결과 일반화와 복제가능성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 입증 근거를 생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지혜, 혹은 사용가능한 지식, 현장의 사회적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믿음만한 지식을 생산하려는 것이다.
- 공동체기반 참여연구 Community Based Participatory Research (CBPR)는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연구방법으로 공동체 구성원, 기관 관계자, 연구자들을 비롯한 연구과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지식을 교류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거버넌스를 가진다.
- 평가 Evaluation: 대부분의 연구가 발표에서 멈춘다면, 액션리서치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효용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³⁾

아시아 다음세대 연구자 교류협력 플랫폼 제안과 관련하여 액티비스트리서치의 특징 및 장점을 액션기반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연구가 자신의 활동과 동료 활동가들이 자신의 연구목적이 되었을 때의 상황, 또는 자신이 활동하는 단체에서 리더 격의 역할을 할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주장도 옹호해야하는 상황에서 오는 윤리적인 문제 등이 그 예다.

액션기반연구 Action Based Research	액티비스트리서치 Activist Researcher
솔루션	사람(연구, 활동)
결과 (해법) 중심	연구 수행자의 성장
의제 중심	의제를 만들려는 당사자
현장 중심 (field work)	방법론 다양
편당 용이	고비용(사람에 지원하는 펠로우십)

3.3 아시아 다음세대 연구자 교류·협력 플랫폼 필요성 및 수요지점 분석

아시아 다음세대 연구자 교류·협력 플랫폼에 대한 수요 지점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잠재적 수요자 상에 근접한 청년 연구자와 활동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총 7명이 인터뷰에 참여했으며⁴⁾ 인터뷰 참여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청년, 플랫폼의 주체이자 대상

인터뷰 참여자들은 청년들과 그들이 속한 세대와 활동방식에 대해서 나름의 이해와 분석을 이야기했다. 그 내용들은 청년연구자, 활동가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플랫폼의 기획과 만날 수 있는

참여자	소속 및 참여자 정보	인터뷰 일시
A	소셜벤처 대표 (35세)	2018. 12. 5
B	시민단체 활동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32세)	2018. 12. 12
C	청년 및 청소년 네트워크 활동 (29세)	2018. 12. 12
D	정당 활동가, 대학원 석사과정 (29세)	2018. 12. 12
E	대학원 석사과정 (31세)	2018. 12. 18
F	젠더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40대 초반)	2018. 12. 14
G	대학원 석사과정 (30대 초반)	2018. 12. 18

지 또는 어떻게 기획에 반영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지점과 맞닿는다. 무엇보다 청년문제 연구자는 자신이 주체이자 대상이 된다. 즉, “자기가 그 문제에 속한 사람이 되는”(A, 인터뷰) 경우에서 오는 특징이 있다. 굉장히 힘 있게 진행이 되거나 성찰적일 수 있지만, 반면 다양한 문제를 규명해야 하는 데서 오는 불명확함이 있다. 그래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어떠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년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는 [지금 청년들이] 살아온 궤적이 다르고 핵심적인 사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묶이는 특성이 있지만 그 특성으로 묶이는 건 조금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구성되는 게 저희 세대라고 본다....그래서 플랫폼이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A, 인터뷰)

“[청년연구자들이] 자기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대학원생이라는 게 고학력에 좀 특수한 경우이지 않나....그러다보니, 나와는 다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청년성’에 대한 상상력이 빈곤한 측면도 있다.” (E, 인터뷰)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초대, 다양한 ‘청년성’을 반영할 필요와 더불어 인터뷰 참여자들은 청년들의 활동에서 연구 교류·협력의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청년 활동가들과 앞 세대 활동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비슷하다. 그런데 얘기하는 방식이 다르다. 저는 청년활동가들이 연구자적 측면이 있다고 느꼈다. 앞 세대들은 자기 활동에 대한 의미가 역사적인 층위에서 되어 있다...앞 세대들은 자기 정체화도 잘 돼있는데, 청년세대 활동가들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의 의미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계속 찾아야하니까...다른 사람들과 얘기하고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 정리하고 이런게 필요하다.” (B, 인터뷰)

4) 이 중 한 참가자는 전화 인터뷰로 진행하였고 추가적으로 웹진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는데 동의하였다. 또 다른 참가자 한 명은 서면으로 인터뷰 답변을 전해왔다.

청년세대가 개인주의가 강하고 조직화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경향이 있어 교류, 협력에 관심이 적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서 한 인터뷰 참여자는 “공동체주의가 싫다고 해도 [저는] 조직화에 대한 욕망이 있다...옛날 방식으로 뭉치기 싫다는 거지, 만나서 뭔가 하고 싶다, 제도권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 이런 게 있다.”고 표현했다. 즉, 연구의 주체, 대상으로 지목되는 청년세대들은 자기활동의 의미화를 스스로의 맥락에서 찾고자 하며, 그러한 작업은 연구에 대한 니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의미화와 임팩트에 대한 고민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다.

2) 청년세대가 호명하는 다음세대

본 연구가 제안하는 플랫폼이 호명하고 초대하는 ‘다음세대’라는 대상 범위에 대해서 인터뷰 참가자들 몇몇은 “청년허브가 ‘다음세대’라고 호명한다면 저한테는 청소년이다...만약 국회에서 다음세대를 키운다고 하면 청년이 해당되겠지만...”이라고 지적했다. 청년활동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음세대는 나와 같은 세대라기보다는 좀 더 어린 세대를 떠올리게 되고, 아직은 사회로부터 무언가 더 받아야 하는 세대라는 것이다. 물론 다음세대가 연구나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터뷰 참여자 A씨는 “다음세대가 자기 일을 해나가면서 변화시킬 세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그렇지만 그들을 좀 더 키워야 되고 지금 제가 경험한 것과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년들이 다음세대를 맞이하는 하나의 방식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인터뷰 참여자는, 이십대들에게서 현재의 삼십대 청년세대와는 다른 특성들이 발견되는데 무엇보다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빠르고 가볍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라고 꼽았다. “이슈가 터지면, [20대들끼리] 자료를 막 모아요 트위터 이런 데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유통시키기 시작해요...언론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B, 인터뷰) 이러한 활동의 방식과 지식공유에 대해서 상호검증이 부족하고 책임성이 결여됐다는 지적과 동시에 청년세대와는 또 다르게 마케팅적인 실행력이 두드러지긴 하지만, 사회과학적 연구태도와 결합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견해도 함께 제시됐다. 당위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청년이 보는 현재 이십대의 특징들은 본 연구가 제안하는 다음세대 플랫폼의 역할 또는 필요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글로벌 교류에 대한 욕구는 어린 세대일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고, 사회과학적 상호검증과 훈련에 대한 필요와 수요지점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다.

3) 연구와 활동의 경계 넘기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연구와 활동 두 가지를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데에 동의했고, 그러한 방식이 절망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불안하다거나 막막한 느낌을 종종 갖게 한다고 말했다.

“학교에 남아서 박사를 하는 것도 뚜렷한 미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활동하는 것도...교수님이 [활동을 하기로 했으면] ‘저 팀장됐습니다’ 이라고 오는 게 아니고 왜 또 퇴사를 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다음 단계가 그런 식으로 이뤄질 거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이런 활동을 하다보면 이론적인 자원도 필요하고 하는데, 연구실에 있다 보면...답답하고 하고 싶은 일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동시에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당연히 개인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 있다.”

(B, 인터뷰)

한 인터뷰 참여자는 연구와 활동을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영역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대학원에 진학하는 목적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라고 여겨진다든가, 공부를 안 하면 활동에서 영감을 받지 못한다든가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대학원] 입학할 때...교수님들의 우려는 논문을 못 쓰다는 거예요...중간에 나가거나, 학교의 자원은 가져다 쓰는데 논문은 마무리 못한다...교수님이 너는 활동이랑 공부 모두 필요한 사람 같다...아직 미숙해서 각각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제가 2년 휴학하고 복학했더니...사람들이 놀라더라. 저 정도 길게 휴학하면 복학을 잘 안한다...근데 나는 논문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계속할까가 고민이다.” (D, 인터뷰)

물론 정치조직이든 시민사회단체든 자신의 관심사와 이슈를 중심으로 펼치는 활동들은 더 해방감을 주고,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성취감을 높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 또는 그러한 태도를 결여한 채 관성적으로 이어지다보면, 특히 청년활동가의 경우 쉽게 동력을 잃게 된다.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대학원을 다니지 않는다가 아니고 마음이 좀 굳어있다.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게을러서 그냥 쪽 간다...그러다 보면 재미가 금방 없어진다.”라는 한 인터뷰 참여자의 표현은 관성적 활동을 경계하기 위한 연구자적 관점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준다.

특히, 학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주제의 경우, 활동의 연장선에서 종종 연구를 수행하는데 그러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는 거의 모든 인터뷰 참여자가 동의했다.

“저희가 기본소득이란 어젠더를 한국에서 시작할 때...저희가 참조할 수 있는 한국어 연구가 별로 없었어요...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찾고 하니...저희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보였을 거예요...연구 비슷한 걸 뭔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예네는 뭐지? 이런 거. 그런데 연구라는 영역이 한국에서는 되게 아카데미한 거예요. 저희가 뭘 해도 거기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층위가 다르죠.” (C,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는, 한 인터뷰 참여자의 표현대로 “토론자로 초대받는데 발제자로는 초대받지 못하는”, 일종의 전문성의 경계 또는 영역 표시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경계와 영역은 제도권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등) 밖에서 활동하는 ‘독립연구자들’ 혹

은 ‘연구활동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전과 장벽을 가져다준다. 이들은 연구와 현장을 연결하고 활동의 면밀한 분석에 관심을 갖는 방법론을 추구한다. 또한 연구의 과정과 현장에 접근하는 태도 자체에서 기존의 ‘연구자’와 차이를 두는 이들 ‘연구활동가’의 경우, 그러한 방식에 대한 엄격함을 유지하는 과정의 어려움에서부터 논문, 도서 및 자료 등의 학술적 자원과 리소스에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적 필요까지 여러 층위에서 수요지점이 발견된다. (F, 인터뷰)

4) 일상의 지속가능성이 주는 힘

공공적 자원에 대해 청년들이 갖는 수요지점은 다양하다. 활동과 연구의 경로, 개인의 고민과 사회적 이슈의 교차성,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윤리의 균형, 동료애와 멘토에 대한 갈증 등. 그러나 그 이면을 관통하고 있는 궁극적인 수요는 일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니즈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게, 내가 이걸 [사업을] 계속하면서 꾸려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누군가와 연결되고, 외롭지 않고 그 안에서 교류와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 하니까...결국엔 계속 그런 좋은 자극을 가지고 가려면 개인의 일상이 좀 더 단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A, 인터뷰)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단발적으로 평균 1년에서 2년의 기간 동안 진행된다. 이러한 지원사업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좋은 프로젝트 기획안이 있더라도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이 섹터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청년인턴제 같은 사업들도 너무 좋은데, 결국 그게 연장이 안되니까 사람들이 모든 단발성 프로젝트에 메뚜기처럼 불안정하게 옮겨 다녀야 하는 2년 동안의 한정된 시간 안에서만 좋고, 그런데 2년 후에는 뭐 먹고 살아야되지?...그러다보면 결국 정규직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E, 인터뷰)

경로가 보장되는 활동이나 연구 영역의 진로 혹은 취업까지 확장하지 않더라도, 활동하고 연구하고 교류하는 모든 일들이 ‘돈’이 드는 일이다.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갖추지 못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청년에 있어서 자원에 대한 니즈는 결국 재정적 지원, 인건비에 대한 수요 지점이 가장 두드러지고, 결국 일상의 힘을 유지할 지속가능성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욕구와 연결됨을 알 수 있다.

5) 레지던시 - 영감과 충전, 그리고 의무

‘연구를 하는 2019년 현재 대한민국 또는 아시아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음 세대에 대한 상상을 더하여 지원해준다’라는 컨셉을 제시했을 때, 관장은 레지던시 같은 프로그램을 떠올렸다고 한 인터뷰 참여자는 밝혔다.

“최근에 작가들 레지던시에 다녀온 친구를 만났는데...엄청 만족했다고 해요. 쉬었다 가라는 취지에서...삼시 세끼가 진짜로 잘 나오고, 도서관도 가고, 마을 회의 같이 입주자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편안한 환경에서 쉬거나, 마지막 집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레지던시의 가장 큰 장점은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일상의 리듬과 공간, 그리고 시간의 구성이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또한 함께 입주한 사람들과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영감을 얻거나 재충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레지던시를 다녀온 한 지인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불안이 내려간 느낌...안정을 찾은 느낌을 받았다”고 한 인터뷰 참여자는 전했다.

반면, 이 같은 레지던시 펠로우십이 무언가 남는 게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플랫폼 참여자들이] 기수별로 꾸준히 충원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지원의 기회가 가게 될텐데, 그게 동창회 이상의 의미를 가지려면 의무라든가 결과물에 대한 약속도 중요할 것 같아요.” (E, 인터뷰)

6) 플랫폼에 대한 기대

본 연구가 제안하는 플랫폼에 대해 인터뷰 참여자들이 갖는 기대의 내용은 첫째, 비슷한 문제의 식과 주제 또는 그것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는 것이었다. 문제의식과 주제는 개개인이 완성하여 참여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 자체도 플랫폼에서 기대하는 중요한 활동 내용이었다. (G, 인터뷰)

“저랑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것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는 네트워크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굳이 억지로 할 말도 없는데 교류하는 게 아니고...아 저 사람은 저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구나, 같은 목표의식이 있으면 좀 더 빨리 친해지더라고요.” (A, 인터뷰)

특히, 연구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치나 모습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 “뭔가를 같이 정의하고 그것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든가, “연구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전형적인 단어여서 [일반적인] 기획과는 또 다른 전문성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와 같이 인터뷰에서 표현됐다.

두 번째 기대요소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방식들과는 ‘다른’ 층위를 만날 수 있는 장이다. 특히 청년활동가들의 경우 네트워크와 활동들이 대부분 겹쳐지는 데서 오는 ‘신선한’ 자극과 ‘다른’ 접근에 대한 갈망과 연결되어 있다.

“전업 활동가로 계속 시민사회에서 성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국내 시민사회활동이 좀기도 하고...결국에는 행정에 들어가냐 안가냐로 귀결되는 인상을 받기도 하고...제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까요...너무 중간지원조직 중심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러한 욕구 지점은 “무언가 꺼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활동과 네트워크의 방식을 의미하

기도 하고, 아시아라는 더 넓은 장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국제적인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제를 찾아서 끌고 들어오
다고 하면 조금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진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플랫폼이 만들어진다하
도 당장 내년이나 후년쯤에 바로 우리가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게 나오지는 않는다 해도, 청
년들에게 이런 판이라는 게 만들어져서...유럽의 활동가들처럼 다른 나라와 뭔가를 같이
한다는 감각에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다.” (B, 인터뷰)

현재 청년들 대상의 공모사업이나 연구지원 사업들의 대상이 많이 겹쳐지고, 비슷비슷한 활동
가, 연구자들이 네트워크의 주요 거점을 이루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만나고자 하는 열린 태도와 기본적인 탐구의 정신이 플랫폼에 담
기기를 바라는 것으로서 여전히 그 의미를 갖을 것이다.

셋째는 청년신진연구자들이 주도하고 기획해서 참여하는 연구교류 협력의 장에 대한 기대이
다. 현재 대학원 과정에 있는 청년 연구자들이 주로 갖고 있는 욕구 지점으로, 예를 들어 아시
아를 무대로 하는 동아시아국제학술대회를 열 수 있는 기획이라든지 주변의 동료들을 넘어서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로 나타났다. “서구유럽 중심의 자유주의적인
개인을 상정해서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아닌 아시아적 맥락에서 저의 연구주제를 살펴보고 싶
고...나와 다른 삶을 보고 우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E, 인터뷰) 연구교류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
라, 연구자로서 학교에서 깊이 있게 배울 수 없는, 각자도생의 분위기와는 다른 지적 공동체 같
은 기대도 발견할 수 있었다. (G, 서면 인터뷰)

마지막으로, 플랫폼 구성과 아웃풋에 대한 기대 내용들이다. 예를 들어,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일정 비율로 섞여서 구성됐으면 하는 점이라든지,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되 같은 사람들이 경쟁
하지 않는 구도였으면 한다면, 플랫폼 자체 그리고 지원받은 펠로우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인가와 같은 사회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것들이다. 또한 연구 플랫폼으
로서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결과물에 대한 기준과 그러한 기준이 다음세대들이 플랫폼에 접근하
는 데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다소 상반된 의견이 있었다.

또한, 연구자적인 코칭과 멘토링에 대한 기대 또한 다수의 인터뷰 참여자가 제시해주었는데, 그
러한 과정에서 정교하고 탄탄한 연구설계나 방법론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
램에 대한 수요지점이 있었다.

“대학원에서 방법론이나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서 아쉬워
하는 경우도 있고...제가 현장에서 필드워크를 하면서 느낀 건데, 현장에 가서 본다라고 다
뭐가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훈련할 수 있는 기간과 프로그램이 있고, 자기 연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G, 인터뷰)

“두 세 명 정도 공동으로 같은 주제를 뽑아서 그 팀에게 해외 석학 정도는 아니더라도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은 사람을 붙여서 일종의 코칭처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면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E, 인터뷰)

3.4. 아시아 교류·협력 플랫폼 관련 아시아 지역 수요지점 현황

본 연구가 제안하는 아시아 다음세대 교류·협력 플랫폼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수요 파악을 위해 홍콩의 MaD, 태국의 ChangeFusion, 영국의 SIX 등과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시도하였다. 또한 아시아의 사회혁신 국제교류 네트워크 전문 조직인 씨닷과 인터뷰를 통해 일본과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수요지점에 대해 짚어보았다.

1) 액션리서치 기반의 지역혁신 및 사회적기업가 사업의 교류지원

앞서 언급한 홍콩의 MaD(Make A Difference)의 Social Lab은 활동가들의 문제해결 중심의 리서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해외 필드워크에 대해 재정지원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 한 달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여 일본의 폐기물처리장에 관한 현장 연구를 수행하고, 홍콩으로 돌아와 제로 폐기물 실행 프로젝트를 실험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스토리텔링하여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공론화와 정책화를 촉진한다. 소셜랩은 지금까지 6개 나라에 6개 팀의 필드워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태국의 경우는, 체인지 메이커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기업가의 액션리서치 수행을 돕는다. 즉, 구체적인 사회변화 이슈를 가지고 체계적인 내용과 실험을 시도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중점을 둔다.

2) 액티비스트리서처(Activist Researcher)가 연결하는 도시정책 교류와 소통

영국에 기반을 둔 SIX의 경우, 연구와 실행의 경계를 잇는 프로젝트로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에서 박사나 커리어를 시작하고 있는 연구자들 중에 솔루션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실천가들과 협업이 이뤄지도록 코디네이팅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유럽의 도시정책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별로 각 그룹들이 모여서 특정한 주제, 특정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3년 간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논의 주제는 청년, 실업, 창의성 등 다양하다. 2단계 도시별 논의체로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 정책에 대한 리뷰, 다른 지역과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고, 2단계에서는 연구자, 정책입안자가 모여 협업하여 결과물 및 정책제안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연결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액티비스트리서처, 즉 연구활동가다.

3) 학계 주도 연구와 로컬 중심 교류의 경계를 넘는 플랫폼의 필요성

홍콩의 경우, 소셜섹터에서 이전에 자주 도입되었던 연구방식 중 하나가 '실증기반(evidence-based) 현장연구'였는데, 그 수행과정에서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 연구의 연구자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결국 교수 등의 학계의 연구자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Anthony Wong, 홍콩 HKCSS: Hong Kong Council of Social Service, 씨닷 인터뷰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후 현장 활동가 중에서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자신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스스로 진행하고자 사람들과 학계의 연구자들과의 교류에 대한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HKCSS는 8년 남짓 이러한 교류를 시도했으나 여전히 학계 중심의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의 방향성은 다르고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하우스 리서처들이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들의 연구력을 키우고자 하는 욕구를 발견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의 성과가 있다. 또한 실증기반연구에 대한 펀딩이 증가했다고 한다. 아시아 차원의 연구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로컬문제를 초점으로 한정됐던 교류를 넘어서야 하는 부분에서 광범위한 수요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원래 업무의 유지하면서 아시아 네트워킹과 협업의 체험하는 부분은 여전히 소구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Anthony Wong, 씨닷 인터뷰에서 재인용)

일본의 경우도 학계 중심의 현장 활동가 연구가 이루어지는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본에서 풀뿌리활동가(grassroot activists)의 활동이 활발한데, 이들이 자신의 활동내용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자 할 때 선택지는 대학원 진학이나 학자들을 찾아가는 것 정도라고 한다. (Ken Ito, AVPN 동아시아 대표, 씨닷 인터뷰에서 재인용) 학계를 중심으로 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 수용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 경로와는 다른 연구자와 활동가 교류·협력 플랫폼은 색다른 접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경우, 현장에서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상이한 경향이 있지만(예를 들어, '공거'라는 정부가 조직한 NGO들의 활동에 많은 자원 투입된다.) 최근 페미니즘과 젠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젊은 유학 인구층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관점의 활동이 생겨나고 있어 의제를 기반으로 하는 교류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박아영 씨닷 공동대표, 인터뷰)

한국 시민사회에서 비교적 비슷한 개념으로 통용되는 '활동'이라는 개념이 아시아 사회 또는 국가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이해되는 점 또한 이 플랫폼에 역동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시민사회 활동으로 보는 관점, 중국의 관주도 활동과 민간 재단의 활동, 그리고 태국 등의 소셜비즈니스 중심의 관점 등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아시아 다음세대 연구 교류·교류 플랫폼은 아시아 각국의 사회적 맥락에 따른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의 차이점 또한 넘어서야 할 것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균형추로서 연구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시아의 다음세대들이 각 국가들의 컨텍스트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연구와 현장을 함께 사고하고, 방법론적인 정교함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연대의 매력은 그런 [컨텍스트의 따른] 차이들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만나서 보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한선경 씨닷 공동대표, 인터뷰)

4장 결론

4. 결론

본 연구는 레지던시 펠로우십 국내외 현황 조사와 아시아 연구 교류·협력 플랫폼에 대한 수요지점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플랫폼의 구축 방안, 추진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 연구 교류·협력 플랫폼의 4가지 전략적 요소를 제시하고 각 요소의 컨셉과 세부내용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대략적 기획안을 제시한다.

1) 대상 (Target)

〈다음세대 청년 연구자, 활동가〉

본 연구가 제안하는 플랫폼의 타깃층은 무엇보다 미래 사회의 주체인 다음세대 청년이다. 그 중에서도 ‘스스로가 활동을 위한 연구를 하고, 연구를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다. 연구와 현장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해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표를 갖되, 연구와 현장을 본질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이들이기도 하다. “통합적인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다음 세대 즉,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좌충우돌하면서도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로 잠재적인 수요자의 상(象)을 표현할 수 있다. (안연정 청년허브 센터장 인터뷰)

아시아 교류를 통해 청년 연구자가 활동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청년들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연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는 밀레니얼 세대 또는 다음세대에게서 발견되는 특성과도 부합한다.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스스로의 중요성을 획득하는 것에 익숙한 이들은 활동가로서 자신의 모습 뿐 만 아니라 그러한 자신의 활동을 성찰하는 모습에도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활동 자체에 대한 당위적 존중보다는 자신의 내적 주도성에 더 무게를 실는 세대 특성이 연구와 활동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류의 형식과 잘 맞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씨앗 인터뷰)

〈액티비스트리서치 Activisit Research〉

액티비스트리서치는 제안된 플랫폼 상에서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만나고 교류하기 위한 방법론이자, 그들의 활동과 교류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과 정체성(Activist Researcher, 액티비스트리서치)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액티비스트리서치’(연구활동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까? 현재 한국 사회의 맥락과 이 플랫폼이 소구하고자 하는 대상 층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연구자와 활동가의 간극을 메꾸고자 하는 사람. 연구와 활동의 시너지를 내는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아카데미와 시민사회의 협력자
- 현장을 넘어서기 위한 해법을 찾는 (실험적) 연구를 하는 사람
- 현장과 이론이 어떻게 큰 맥락에 맞닿는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
- 구체적인 활동과 주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체계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논문을 쓰기 위해 서만이 아닌 전문성을 위한 연구와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을 직접 하고자 하는 연구자. 그 실험은 현장에서 할 수도 있고, 가설을 정해놓고 평가함으로써 할 수도 있음.

- 학교에 있지만 현장에서 실험하고자 하는 청년 연구자
- 활동가이면서 내용적인 발전을 위해 학교에 가는 것을 고민하는 이행기의 청년 활동가

이와 같은 액티비스트리서처의 상은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던져준다. 우선, 다양한 경로들에 대한 실험을 통해 현장과 연구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액티비스트리서처의 개념이 유효하다고 봤을 때, 연구역량과 활동역량의 우선 순위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정한 수준의 퀄리티 혹은 전문성에 대한 요건을 청년 특히 다음세대라는 대상 층을 고려할 때 어떤 수위로 정해야 할 것인가이다. 활동력, 연구력, 추진력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의 흐름에 대한 대응력 등의 역량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측정과 증명은 여전히 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혹은 다음세대에 대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학계에서 쓰이는 신진연구자의 개념은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3년 혹은 5년) 이내의 연구자를 일컫는 것처럼, 34세라는 정책적 기준을 따를 것인지, 다음세대에 초점을 두어 20대를 주요 타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세대'와 '액티비스트리서처'는 이 플랫폼의 주요 개념(key concepts)으로서 유용하다. 전통적인 학계와 실천 그리고 이전 세대가 바라보는 연구와 활동, 액티비즘의 경험과는 다르게 다음세대 청년들이 구성하는 두 영역의 모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2) 형식 (Format)

〈플랫폼의 역할〉

플랫폼의 역할은 다음세대 어젠더와 연결된 과업 또는 그 과업에 따른 자신의 정체성을 다각화할 수 있는 언어, 기술,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 활동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연구자로 출발해서 좋은 연구를 하고 싶어 왔더라도 활동가가 될 수 있고, 또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험, 지식, 사회자원이 단절되지 않고 언제든 다시 만나고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인터뷰를 통한 수요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과 활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만나는 통합적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방법론과 면담함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과정에 있어서 청년과 다음세대가 가지는 주제와 접점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가져가고 그것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학술적 논문의 형식일 필요는 없겠지만, 연구로서 유의미한 솔루션을 내오고 증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차원의 자원을 연계해주고 글로벌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 국제교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형식〉

국제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활동은 넘쳐나는데 연결고리, 네트워크, 사례소개, 아젠다 세팅 등이 단절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해야 한다. 한 주제를 3년, 5년 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그나마 조금씩 보편성이 생기거나 작동 가능해지는 현실을 무시한 채 단순 소개에 그치는 네트워크는 문제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축적되지 않기 때문이다.

“컨퍼런스가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연결은 되는데 사회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네트워크와 액션이 결합해 정책입안 전단계의 솔루션 찾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사회혁신의 스타이럴이 앞 단계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원재, LAB2050대표 인터뷰)

〈레지던시 펠로우십〉

레지던시 펠로우십은 기수가 생기면서 사람들을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강점이 있고, 처음엔 작아보여도 회차가 지나면서 성과가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기에도 유리한 형식이다. 앞으로의 활동에 지지가 되는 네트워크 형성해서, 중요한 리더가 됐을 때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운영의 형식은 서울로 선발된 펠로우들을 초대해서 한 회당 10~20명 사이 규모의 레지던시 펠로우십이다. 연구를 서울에서 꼭 할 필요는 없지만 교류의 거점이 될 필요가 있다. 펠로우들이 흩어져 있다가 2주에서 한 달 정도 교류하는 형식이 적절할 것이다.

3) 운영 (Committee)

본 플랫폼의 사무국은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두는 것을 제안하며,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다. 국제적 플랫폼으로서 영어를 소통언어로 하고, 참가자들의 자국어 번역 지원에 대해서는 최소화한다. 지원자들의 프로포절 항목을 연구와 활동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평가들도 본인들이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스스로 연구내용과 활동내용을 구조화하고 그것을 평가하고자 하도록 결과물 (논문, 출판 등의 텍스트, 제작물 등)을 도출해야 한다. 연구위원회(커미티)를 구성하여 참가자들의 결과물의 퀄리티를 관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아시아 플랫폼으로서 컨트리 파트너를 수립해야 하고, 그 역할은 단순한 홍보 파트너 보다는 전략적으로 협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4) 의제 (Agenda)

매 해 주제를 설정하여 의제로 가져가는 방식을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한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아시아 청년 플랫폼에 대한 공공적 투자이고, 다음세대 액티비스트리서처라는 새로운 컨셉을 제시하는 기획이니만큼 보다 포괄적이면서 여러 층위의 접점이 가능한 깊이

있는 의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래세대는 어떤 아시아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은가?”라는 테마를 론칭 행사에 던지며, 다음세대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세대의 아젠다를 선정하게 하는 방식이라든지, “아시아의 불평등과 청년의 삶” “테크놀로지와 아시아 청년의 미래”와 같은 보편적이지만 아시아 각 사회의 맥락에서 분화되고 심화될 수 있는 주제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좀 더 실제적 내용이 담길 의제로서 “아시아에서 노동의 가치”와 같이 전통적 노동의제와 새롭게 대두되는 노동의 미래와 일의 의미가 공존하는 아시아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음세대 청년들이 만들어갈 노동과 사회의 모습에 대해 심도 있게 진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4.1 프로그램 기획안

또 좀 더 실제적 내용이 담길 의제로서 “아시아에서 노동의 가치”와 같이 전통적 노동의제와 새롭게 대두되는 노동의 미래와 일의 의미가 공존하는 아시아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음세대 청년들이 만들어갈 노동과 사회의 모습에 대해 심도 있게 진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제목 아시아 다음세대 연구자 교류협력 플랫폼
- 컨셉 아시아 다음세대 액티비스트리서처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연구와 교류협력을 지원한다.
- 사업기간 1년 단위
- 모집시기 1월 1일~12월 31일, 다음 해 2월 결정
- 지원기간 10개월 (3월 시작, 12월 종료)
- 지원내용 레지던시, 연구비 지원
- 대상 액티비스트리서처 (연구활동가)
- 연령 만 39세 미만
- 지원방식 오픈콜 + 초대 (론칭 행사 및 1회)
- 선발자료 프로그램 지원서(개인정보 및 질문지), CV, 프로젝트 기획서 등
- 운영방안 - 결과물 제출 유무에 따라 연구활동 및 연구비지원 여부가 나뉜다.
 - 선발된 연구자들의 문제의식과 연구설계의 초기 세팅을 위해서는 레지던시를 초반부에 배치할 수 있다.
 - 참여자들의 각 연구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후반부에 레지던시를 운영할 수 있다.
- 레지던지 운영 사례

1) 지원사업에 연구결과물 제출을 포함하는 경우

1안 프로그램 시작 시점과 마치는 시점, 두 번에 걸쳐 레지던시에 참여하도록 운영한다. 시작 시점에 열리는 레지던시는 연구주제 심화, 연구설계, 방법론과 같은 연구자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다. 폐회 시기 열리는 레지던시는 결과물 발표 및 피드백을 통한 결과물 완성도의 향상에 초점을 둔다.

① 1-A안: 개회 2주 - 폐회 2주 (해외 참가자, 직업을 가진 참가자 등을 고려한 적정기간 2주, 초기 프로그램 기간 단축에 따른 효율적 운영 필요)

② 1-B안: 개회 1달 - 폐회 2주 (초기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류 협력 프로그램에 방점)

2안 개회 1달 레지던시 - 폐회식 (레지던시 없음)

개회 레지던시만 운영. 의제설정 및 연구 설계와 방법론과 같은 연구자 역량강화와 공동의 문제의식 조성에 초점.

3안 폐회 레지던시만 운영. 레지던시 기간 동안 결과물을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연구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맞춤.

2) 연구결과물 제출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4안 교류·협력에 주요 초점을 두어 별도의 연구기간 없이 2주~1달 간의 레지던시만 운영함. 장기 컨퍼런스 개념에 가까움. 연구비 지원하지 않음. 1년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예를 들어 1기~2기의 펠로우 선발 및 지원이 가능함.

	개회 (3월)	연구기간 (4-11월)	폐회 (12월)
1-A안	개회레지던시: 2주	9개월	폐회레지던시: 2주
1-B안	개회레지던시: 1개월	8개월 반	폐회레지던시: 2주
2안	개회레지던시: 1개월	9개월	폐회 (레지던시 없음)
3안	개회식 (레지던시 없음)	9개월 반	레지던시 및 폐회식 (2주)
4안	상반기 레지던시 (1개월)	하반기 레지던시 (1개월)	

• 언어 의사소통 언어 (영어)

• 결과물 언어 영어로 통일 또는 영어와 자국어 (영어감수 또는 영어번역지원의 문제)

• 역량강화프로그램

① 다양한 연구 방법론에 대한 워크샵

② 의제 발전 및 연구설계 코칭: 프로그램 회수별 공통의제가 있을 시, 해당 주제의 특강 진행. 강사 및 멘토 초빙

③ 교류 역량 강화: 아시아 지역적 맥락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아시아 지역 비교 연구자 초빙하여 특강 진행 또는 참가자 국가별 컨트리 레포트 세션 운영, 다국적팀 구성 후 교류전문가의 지도하에 워크샵 진행

참고문헌

Bourdieu, Pierre, & Wacquant, Loic J.D. (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rey, S. (1954). Action Research in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7, No. 5, 375-380.

Couture, S. (2017). Activist Scholarship: The Complicated Entanglements of Activism and Research Work.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42, 143-147. 검색일 12월 12일, 2018년,
출처 <https://www.cjc-online.ca/index.php/journal/article/view/3107/3332>

Hale, C. (2001). What Is Activist Research? Items & Issues Vol. 2, No. 1-2, 13-15. 검색일 12월 11일, 2018년,
출처 https://issuu.com/ssrcitemissues/docs/i_i_vol_2_no_1-2_2001?e=24618429/35326062

Lewin, K. (1946). Action research and minority problem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2, No. 4, 34-46.

Speed, S. (2006). At the crossroads of human rights and anthropology: Toward a critically engaged activist research. American Anthropologist, 108(1), 66-76.

*해외 및 국내 레지던시/펠로우 프로그램 정보 출처 (가나다, 알파벳 순서)

경기창작센터. (n.d.). 검색일 12월 8일, 2018년,
출처 경기창작센터 공모지원 웹사이트: <https://gcc.ggcf.kr/archives/category/apply-notice>

뷰티풀펠로우. (n.d.). 검색일 12월 2일, 2018년,
출처 아름다운가게 - 사회적기업센터 웹사이트: <http://sec.beautifulstore.org/beautiful-fellow>

아쇼카 펠로우. (n.d.). 검색일 12월 2일, 2018년,
출처 아쇼카한국 웹사이트: http://ashokakorea.org/ashoka_fellow/

토지문화재단. (n.d.). 검색일 12월 8일, 2018년,
출처 토지문화재단 공지사항 웹사이트: http://www.tojicf.org/sub4/sub1.html?ptype=list&code=sub4_sub1&idx=9046

Action-Based Research Method - A Bibliography. (n.d.). 검색일 12월 11일, 2018년,
출처 Action-Based Research Methods 웹사이트: <https://activistresearchmethods.wordpress.com/about/>

AirAsia Foundation - Grant Application. (n.d.). 검색일 12월 3일, 2018년,
출처 AirAsiaFoundation 웹사이트: <https://www.airasiafoundation.com/grant-application/>

Asia Leadership Fellow Program (ALFP). (2018년, 12월 11일). 검색일 11월 30일, 2018년,
출처 재팬 파운데이션 프로젝트: <https://jfac.jp/en/culture/projects/asia-leadership-fellow-program/>

David Clarke Social Innovation Fellowships. (2016, 6월 6일). 검색일 11월 30일, 2018년, 출처 Macquarie Group 웹사이트: <https://www.macquarie.com/id/about/community/david-clarke-social-innovation-fellowships/>

DBS Foundation – GrantProgramme. (n.d.). 검색일 12월 3일, 2018년, 출처 DBSFoundation 웹사이트: <https://www.dbs.com/dbsfoundation/grant-programme/default.page>

Hive. (n.d.). 검색일 12월 3일, 2018년, 출처 thecamp foundation 웹사이트: <https://thecamp.fr/collaborative-residency-hive>

International Grant Program 2018. (n.d.). 검색일 11월 30일, 2018년, 출처 도요타파운데이션 웹사이트: <https://www.toyotafound.or.jp/english/international/2018/>

JC MaD Social Lab. (n.d.). 검색일 12월 2일, 2018년, 출처 Make a Difference 프로그램: <http://www.mad.asia/programmes/mad-social-lab>

M+ / Design Trust Research Fellowship. (n.d.). 검색일 12월 3일, 2018년, 출처 WestKowloon Cultural District 웹사이트: <https://www.westkowloon.hk/en/whats-on/past-events/m-design-trust-research-fellowship>

Open Society Fellowship. (n.d.). 검색일 11월 30일, 2018년, 출처 오픈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 웹사이트: <https://www.opensocietyfoundations.org/grants/open-society-fellowship>

Program Evaluations Metaevaluation Checklist. (2012년). 검색일 12월 11일, 2018년, 출처 USAID Learning Lab 웹사이트: http://dev.usaidlearninglab.org.623elmp01.blackmesh.com/sites/default/files/resource/files/mod3_meta_evaluation_checklist_1.pdf

Research Grant Program 2018. (n.d.). 검색일 11월 30일, 2018년, 출처 도요타파운데이션 웹사이트: <https://www.toyotafound.or.jp/english/research/2018/>

SIP Fellows. (n.d.). 검색일 12월 3일, 2018년, 출처 Social Innovation Park 웹사이트: <http://www.socialinnovationpark.org/about-us/sip-awards/sip-fellows/>

TED Fellows Program. (n.d.). 검색일 12월 9일, 2018년, 출처 TED 웹사이트: <https://www.ted.com/participate/ted-fellows-program>

The Bellagio Center Residency Program. (n.d.). 검색일 11월 30일, 2018년, 출처 록펠러 재단 웹사이트: <https://www.rockefellerfoundation.org/our-work/bellagio-center/residency-program/>

The Global ARC. (n.d.). 검색일 12월 10일, 2018년, 출처 The Global ARC 홈페이지: <http://www.theglobalarc.org>

THE JAPAN FOUNDATION ASIA CENTER Grant & Fellowship Programs Website. (n.d.). 검색일 11월 30일, 2018년, 출처: 재팬 파운데이션 아시아 센터: <https://jfac.jp/en/culture/grant-fellowship/>

Youth Co:Lab. (n.d.). 검색일 12월 3일, 2018년, 출처 Youth Co:Lab 웹사이트: <http://youthcolab.org/content/youthcolab/en/home.html>

Asia's Next Generation Activist Researcher Collaboration Platform

Project Background

From 2014, Seoul Youth Hub has successfully supported youth researchers to come up with diverse policies that enhance the life of the youth in Seoul. It is now the time for the youth of the Asia to come together beyond their traditional boundaries, whether that is national borders or domains of their activities, and collaborate on finding agenda and solution for the better life of the next generation. In order to aid this needs, this research suggests an international platform where Asia's next generation activist researchers can exchange and collaborate on shared agenda.

Project Goal

The goal of this proposed platform is to invest in person and to spawn Asian community. There are unfulfilled needs in supporting youth activist researchers and connecting them with other fellows beyond their domestic fields to find their own ways to make a better city, a society, and an Asian world. This platform herewith seeks to provide a suitable solution to meet those needs.

Research Objective

The foremost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different residency, fellowship, and community innovation programs which are operated in and outside of Korea. Also, to analyze the actual needs and requests of the proposed platform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potential subjects and interested parties. This research concludes with a blueprint of Asia's Next Generation Activist Researcher Collaboration Platform including key concepts and elements of the project.

Residency, Fellowship, Community Innovation Programs

Overseas Programs

- Rockefeller Foundation's 'The Bellagio Center Residency Program'
- The Japan Foundation's 'Asian Leadership Fellow Program', 'Promotion of Cultural Collaboration Grant Program', 'The Asia Center Fellowship Program', 'Enhancing People-to-People Exchange Grant Program'
- Toyota Foundation's 'International Grant Program', 'Research Grant Program'
- The Open Society Foundations' 'Open Society Fellowship'
- TED Fellows Program
- The Global Action Research Center – San Diego, CA, USA
- Jockey Club Make A Difference Social Lab – Hong Kong
- David Clarke Social Innovation Fellowship for Hong Kong, Australia, UK, and USA
- M+ / Design Trust Research Fellowship – Hong Kong
- Social Innovation Park's 'SIP Fellows' – Singapore
- AirAsia Foundation's Grant program for ASEAN
- DBS Foundation's Grant program for Hong Kong, India, Indonesia, Singapore, and Taiwan
- Youth Co: Lab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the camp foundation's 'Hive' – France

Domestic (Korean) Programs

- Ashoka Korea's 'Ashoka Fellow'
- The Beautiful Store Foundation's 'Beautiful Fellows'
- Toji Cultural Foundation's Writer and Artist Residency
- Gyeonggi Creation Center's 'Artist-In-Residence'

As a conclusion to the examination of the above programs, this research proposes residency fellowship as the most appropriate form to realize the platform's objective. Residency fellowship program can create a scene where participants exchange and research of idea, agenda, and activities occur naturally by offering multi-faceted resources such as physical place, time, and knowledge. This can be inferred from, for example, Rockefeller Foundation's residency program which testifies synergy created from the exchange among cross-sector participants. Asian Leadership Fellow Program's 2018 theme, "Imagining Plural Asias: How Can We Enrich Interrelationships across Borders?" and Toyota Foundation's International Grant Program can be the examples of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mutual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setting. Hong Kong's Social Lab and San

Diego's The Global Action Research Center give insights on using action research as a tool to come up with direct and innovative solutions regarding community-level problems. Among these established programs, it is rare to find programs that are specifically targeted for younger generation, therefore, strengthening the conviction of the needs in devising a platform for the next generation.

Activist Research/Researcher

Another integral part of the platform is to define the methodology in crossing the traditional boundaries of action and research. In an essay, "What is Activist Research?", Hale (2001)¹⁾ presents activist research as an alternative research method. Hale describes activist research as a practice that: a) helps one to better understand the causes of inequality, oppression, violence, etc.; b) is carried out, at each phase, in direct cooperation with an organized collective of people who themselves are subject to these conditions; and c) is used together with the people in question to transform these conditions.

Activist Researcher vs. Action Based Research

Action Based Research, also known as Action Research, used by San Diego's The Global Action Research Center and Hong Kong's Social Lab is a solution-based research method. Action research is conducted for an immediate problem-solving, which starts from defining the problem at hand and formulating a hypothesis that can either solve or improve the problem and then, deriving a conclusion from experimenting the hypothesis in the field (Corey, 1954).²⁾

In regards to Asia's Next Generation Activist Researcher Collaboration Platform, below is a table that compares activist researcher to action based research.

Action Based Research	Activist Researcher
Solution	Person (Research, Action)
Solution oriented	Researcher's personal growth
Agenda oriented	The Agent formulating agenda
Field work oriented	Diverse methodologies
Easier funding	High-cost (Fellowship supporting person)

1) Hale, C. (2001). What Is Activist Research? Items & Issues Vol. 2, No. 1-2, 13-15. Retrieved on Dec.11, 2018 from https://issuu.com/sscritemissions/docs/i_j_vol_2_no_1-2_2001?e=24618429/35326062

2) Corey, S. (1954). Action Research in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7, No. 5, 375-380.

Needs Analysis from the Interviews of Potential Participants in Korea

- 1) Youth as both subject and object of the platform. Youth are prone to find justification of their action within their own context which can lead to the needs of research and networking for enlarging social impact and meaning.
- 2) Next generation shows great interest in international exchange and is characterized by rapid knowledge production and marketing-like execution which calls for a combination with social science research perspective to create greater synergy.
- 3) Most interviewees showed great interest in combining action and research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in maintaining this stance, due to lack of resources and unsecure status within traditional norm.
- 4) The youth being comparatively vulnerable financially, an imminent condition for research exchanges is financial support to be able to sustain daily life.
- 5) Residency, as a pause to recharge and to receive inspiration, is pursued but at the same time, the youth themselves pointed out that responsibility and outcome of the residenc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 6) Many showed interest and expectation on being able to meet and collaborate with diverse people on shared agenda. There are needs also in receiving academic coaching and support outside of the academia.

Needs Analysis of Other Asian Regions

- 1) Community innovation based on action research is actively practiced in Hong Kong by MaD while in Thailand, social entrepreneurship takes initiative in conducting action research which experiments and focuses on producing practical outcomes.
- 2) SIX, based in UK, carries out a project that coordinates academia to connect research to action. Activist Research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necting different European cities with their policies by conducting policy review and comparative study and ultimately gather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to collaborate on deducing valid outcomes or policies.
- 3) Hong Kong Council of Social Service found out from its 8 years of experience with practice-based research that there is spawned sharp increase in in-house researchers and funding. While this proves 'activist research' approach is effective in local level, expanding it to international level can involve complex issues due to different circumstances. Still, there seems to be needs in exchanges and collaboration between Asian countries.

According to Ken Ito, East Asia Representative of AVPN, there is a positive prospect of the platform since it will open up a new opportunity for activists and researchers to connect, compared to the tradition in Japan to solely depend on academia for that part. China seems very different from other Asian countries in treating problems in action. For example, a lot of resources are invested into government-driven NGOs. However, younger generation in China shares universal agenda like feminism and gender which opens up opportunity of collaboration basing on agenda.

Although action is carried out differently in each of the Asian countries, this difference could bring dynamic to the Asian solidarity. The difference can be overcome by consistent research exchanges and combining research and action with elaborate methodologies.

Conclusion: Four Concepts and Elements

1) Target

The target of the project is the Next Generation Activist Researcher who tries to be more integrated person and keep asking questions on what is a good life and finding answers in their own way. They also want to exchange beyond dichotomous way of thinking research and action. Activist Research is also proposed as a methodology for the youth activists and researchers to meet and exchange and also as a concept to implicate the platform's ideal target and activity.

Some of the anticipated challenges are, for example, whether to prioritize action or research, difficulty in setting qualification standard in terms of professionalism for younger generation, whether to take physical age or academic background for defining next generation.

2) Format

Platform's role is to create a scene where people who do research meet and exchange with people who do action. And to create a network where experience, knowledge, and social infrastructures are contained throughout without interruption so that these two sectors to continuously affect each other and to create synergy. It needs to support methodology learning to help making a valid result and be able to expand it beyond the program and also it needs to provide Pan-Asian resources to cultivate global research capability.

Residency Fellowship is a suitable form to create a community by accumulating fellows as it progresses. About 10 to 20 people are selected as fellows each year and invited to Seoul to live together and to exchange research for 2 weeks to 1 month.

3) Committee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govern selection process, making sure to integrate both research and action aspects. An inclusive and professional research committee is required to help participants structure their research and come up with own evaluation tool, and to maintain result quality. As Pan-Asian platform, it is ideal to establish collaborative partnership with other Asian countries from the strategic steps.

4) Agenda

Since the platform is unprecedented and unique in the way that it presents the new term “activist researcher”, there is a need for setting up profound agenda that is comprehensive and multilayered. For example, a theme such as “What kind of society does the next generation dream of?” can open up the launching ceremony and ask the youth themselves to come up and choose the next generation’s agenda. “Youth’s life and inequality in Asia” and “Technology and Asian youth’s future” are some of the more universal agenda that can be specialized in each of the Asian countries. “Labor’s value in Asia” is another example that includes both traditional agenda of labor and the future of labor and the meaning of job which coexists in Asian societies.

Program Outline

- **Title** Asia’s Next Generation Activist Researcher Collaboration Platform
- **Concept** Finding Asia’s next generation activist researchers and support their research and collaboration
- **Program Time-frame** Yearly base
- **Call for Application** November 1 ~ December 31st, selection made during February of the next year
- **Length of Program** 10 months (starting from March and ends in December)
- **Benefit** Residency, Research grant
- **Target** Activist researcher
- **Target’s Age** Under 39
- **Application Format** Open call + invitation (for launching ceremony)
- **Application Documents** Application form (personal information and questionnaires), CV, proposal etc.

• Management Scheme

- Depending on mandating outcome, there may or may not be research period and research grant.
- If shared agenda set-up and research design in the beginning is prioritized, then residency comes in start of the program.
- If the research outcome's quality is prioritized, then residency comes in the end of the program.

	Opening (March)	Research (April ~ November)	Closing (December)
1-A	Opening Residency: 2 weeks	9 months	Closing Residency: 2 weeks
1-B	Opening Residency: 1 month	8 and half months	Closing Residency: 2 weeks
2	Opening Residency: 1 month	9 months	Closing (No residency)
3	Opening (No residency)	9 and half months	Residency & Closing Ceremony (2 weeks)
4	1st round of residency (1 month)		2nd round of residency (1 month)

• Language of Exchange English

• **Language of Outcome** English only or English, Participant's mother tongue (English translation and revision support needed)

•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

- Workshops on diverse research methodologies
- Agenda development and research design coaching: Special lectures based on shared agenda. Assigning mentors and lecturers
- Strengthening Exchanges: Helping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Asian region by inviting Asian region specialist and holding lectures on comparative research in Asia, country report by participants, workshops in multinational team

아시아 다음세대 연구자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발행 2018년 12월
판명과 판수 초판 1쇄
연구수행 재단법인 랩2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16, 4층
디자인 DNC | www.thednc.co.kr

© 2018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이 보고서는 2018년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기획연구의 결과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녹번동 5번지) 우)03371

T +82-(0)2-351-4196 F +82-(0)2-351-3580

E contact@youthhub.kr